

설 연휴 진료·교통·청소 특별대책 마련

보건소 상황실 운영... 연휴 24시간 비상근무 진료기관·약국 안내
13,14일 마을버스 새벽 2시까지 운행... 특별감찰로 공직기강 확립

구로구가 설 연휴를 대비해 응급진료, 교통, 폭설 및 한파, 재난 안전, 따뜻한 명절 보내기, 공직기강 확립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5일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비상진료, 대중교통 증편, 주차단속 완화 등 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1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는 24시간 3곳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고대 구로병원, 구로성심병원 등 응급의료기관과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진료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을 안내한다.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기관과 약국은 구청 홈페이지와 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단 표 6면>

귀성, 귀경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증편 등 특별 교통대책도 세웠다. 10일부터 15일까지 구청 종합상황실에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밤늦게 귀경하는 주민들을 위해 13, 14일 이틀간 관내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마을버스를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구로역, 신도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 등 관내 주요역사에서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여객유치, 호객행위, 콜밴·자가용의 불법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도 실시한다.

구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계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주차, 이열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8일부터 15일까지 남구로시장, 오류시장, 개봉중앙시장, 고척근린시장, 고척프라자 등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 주차 허용구간을 만들어 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보도와 인접한 1개 차선에 2시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된다.

구는 또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11일부터 14일까지 청소상황실을 운영한다. 청소기동반을 투입해 대로변, 이면도로, 다중이용장소 등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접수된 청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연휴 중 자원회수시설과 매립지 휴무로 인해 12일부터 13일 오후 8시까지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기존 배출일이 월·수·금요일인 지역은 15일 오후 8시 이후부터, 기존 배출일이 일·화·목요일인 지역은 14일 오후 8시 이후 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인파 북적'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 6곳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제수용품 할인행사와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관내 최대 전통시장인 남구로시장은 3일부터 10일까지 제수용품 등 할인행사, 경품 추첨행사를 펼친다. <사진은 8일 설 맞이 준비로 남구로시장을 찾은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구는 이외에도 ▲도로시설물, 영화관·공연장 등 다중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사고 예방 ▲화재, 폭설·한파 대비 비상대책 ▲설성수품 물가관리, 전통시장·대형마트 원산지 표시 단속 ▲저소득 취약·소외계층 지원 ▲감사일 특별감찰로 설 전후 구 분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근무자 대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굶픔·향응수수, 민원처리 지연, 근무태만, 공직자 정치중립 위반 등 공직기강 확립 대책도 마련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사랑상품권' 180억 발행

13.5만원 3종류 신한 솔 등 17개 모바일 결제앱서 판매
할인율 10%, 소득공제 30% ... 가맹점 1만313곳서 사용

구로구가 지난 4일 18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구는 "주민들의 소비 여력을 증진시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화폐 '구로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 상품권으로 1만원, 5만원, 10만원 3종류가 발행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1만313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발행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결제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주어진다. 1인

당 월 7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2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5년.

구입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유비페이, 핀크, 신한 솔(SOL),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17개 모바일 결제앱에서 가능하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지난해 4월 50억원, 7월 50억원, 9월 35억원 등 총 135억원 규모로 발행돼, 3차례 모두 조기에 완판됐다.

<김유권 기자>

코로나19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을 실천합시다!

집으로
배달다
리 콘서트

2021.02.20. 토
17:00~21:00

구로구에서
배달하는 라이브공연
집에서 보고 즐기세요~

※ 영상통화 팬미팅 신청 받습니다 (구로구청 홈페이지)

구로G페스티벌

플랫폼스테레오

네트키넥션
(싱어제임 26호 가수)

아시안체어샷

‘해고 없는 도시 구로’ 고용유지지원금 올해도 지원

관내 中企·소상공인 대상 ... 구청서 사업주에 부담금 6개월간 보조 작년 서울시 자치구 첫 시행 ... 올 1,120여개 업체 12억 지급

구로구가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참여 기업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실직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참여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대상기간(1~11월) 중 신청일 기준 구로구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예술스포츠업의 경우 2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 유급휴직 시 사업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구로구가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참여 기업들을 위해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선언식>

받을 수 있다. 금액은 근로자 휴업·휴직 수당의 10%로 최대 6개월간 지원 받는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올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2월 1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860-2855)로 문의.

이에 앞서 구로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기업을 지

원한 바 있다. 그 결과 777개 업체, 4,003명에 6억2,00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1,120여개 업체, 5,580여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한수 지역경제과장은 “일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업인, 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며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구로구선관위, 정치인의 선거구민 금품 제공 등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철)는 설 명절(11일~14일)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4월 7일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선물제공 등 각종 금지제한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여 할 예정이다.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

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 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 및 신고·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02-3281-1390) 및 전국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유권 기자>

‘시장 출마’ 박영선 전 장관, 정치적 고향 G밸리 방문

“구로는 ‘21분 콤팩트 시티’ 중요한 영감 된 지역”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지 3일째인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구로구를 찾았다. 구로구(을)은 박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 내리 3선(18·19·20대)을 안겨 준 지역구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과 함께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들을 방문했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박 전 장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당선됐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8일 오후 구로G밸리 의료영상정보솔루션 기업인 인피니트헬스케어를 방문, 김동욱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오른쪽은 윤건영 의원)

“구로는 ‘21분 콤팩트 시티’의 중요한 영감이 된 지역”이라며 “수직정원도시와 같이 부지의 수직적

활용을 통해서라도 핵심 인프라 구축을 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서울남부보훈지청-구로구청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사업 MOU 체결

서울남부보훈지청(지청장 양홍준)은 지난 4일 구로구청과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양홍준서울남부보훈지청과 이성 구청장이 참석했다.<사진>

이날 업무협약에는 ▲보훈정신 계승발전을 위한 선양사업 ▲장례용품 지원사업 추진 및 홍보활동 ▲기타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과 의무이행 등 내용이 담겼다.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는 장례용품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상시 확인 할 수 있는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구로구로 전입하는 보훈가족에게 지원사업 안내리플릿을 발송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양홍준지청장은 “구로구청의 다양하고 세심한 보훈가족 지원사업에 보훈가족을 대신하여 감사의

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2021. 02. 04.(목) 15:00 장소 : 구



말씀을 드린다”며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지친 보훈가족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로 밝혔다.

앞으로 서울남부보훈지청은 구로구청과의 MOU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연계한 지원사업을 발굴,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보답하는 든든한 보훈가족 실현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18~37세 병역미필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구로구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병역미필자(18~37세)들을 대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기존에는 18~24세의 경우는 24세를 한도로 최장 5년 한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25세 이상

의 경우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1년 단수여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1년 복수여권, 1년 초과 시에는 해당 기간까지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했다.

다만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는 받아야 한다. 해외 체류 중인 이도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백화용 민원여권과장은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병역미필자가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만수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발행인: 김유권 구독료: 월 5,000원 · 연 50,000원
 주간: 한만수 편집국장: 채홍길 기사제보: 02)830-0905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관내 491곳 '명예도로명' 주민 공모

현장조사·주민의견 수렴·도로명주소위 심의 거쳐 올 7월 지정

지난해 넥타이마라톤로 '남쿠칭로' 2곳 지정



구로구는 구로의 역사와 도시 브랜드를 상징하는 도로를 찾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명예도로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명예도로명을 부여한 넥타이마라톤로>

구로구가 명예도로명 주민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구로의 역사와 도시 브랜드를 상징하는 도로를 찾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명예도로명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명예도로명 지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명예도로명'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추가로 부여되는 도로명이다.

구로구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관내 도로구간 491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내용은 명예도로 지정 구간과 명칭, 제안 이유, 기대효과 등이며,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을 상징하거나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명칭이면 된다.

이번 공모에는 구로구 주민, 관내 직장인 또는 단체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신청서류를 갖춰 이달 17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860-2627), 이메일(seok1031@guro.go.kr)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는 지난해 주민공모를 통해 관내 도로 2곳에 명예도로명 '남쿠칭로'와 '넥타이마라톤로'를 부여했다.

'남쿠칭로(새말로 18길 279m 구간)'는 구로구의 해외 우호도시 말레이시아 남쿠칭시에서, '넥타이마라톤로(디지털로 777m 구간)'는 구로구 대표 축제 넥타이마라톤대회에서 각각 이름을 따왔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까지 명예도로명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며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민주평통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

북한이탈주민에 '설맞이 떡국떡 나눔' 행사



민주평통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는 지난 2월 4일 오후 2시 구로경찰서에서 '설맞이 떡국떡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오른쪽 두번째부터 이성 구청장, 이학만 평통회장, 임경우 구로경찰서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회장 이학만)는 지난 2월 4일 오후 2시 구로경찰서에서 '설맞이 떡국떡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 설을 맞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사랑의 떡국떡을 전달함으로써 설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안정적 정착 생활에 희망을 주고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떡국떡 5Kg 60박스를 전달했다.

이번 떡국떡 전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의 거리두기 실천으로 민주평통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 이학만 협의회장, 이휘진 간사, 대흥기관장인 이성 구청장, 임경우 구로경찰서장, 북한이탈주민 대표 3인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분위기 확산에 동참하고 있으며, 매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사랑과 마음을 전달해왔다. <김유권 기자>

'훈훈한 사랑나눔' 으로 한파 녹인다

밀반찬·라면·잡곡·성금 등 나눔 행렬 이어져

구로구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신도림동에서는 동적십자봉사회(회장 김갑숙)가 저소득 어르신과 장애인 50명에게 직접 만든 등뼈 우거지탕을 전달했다. 동자원봉사캠프(캠프장 서춘희)는 26일 관내 나눔가게 도야미리(대표 최홍창), 뚜레쥬르 신도림태영점(대표 고용길)의 후원을 받아 홀몸어르신 10가구에 찌개, 밀반찬, 빵 등 음식과 직접 뜯은 목도리와 수세미 등을 지원했다. 서울신도림라이온스클럽(회장

김진아)도 25일 저소득 주민들에게 라면 130박스, 잡곡 130포를 전했다. 21일 오류1동에서는 익명의 주민이 라면 23박스와 직접 만든 수세미 100개를 동주민센터로 기부했다. 18일 오류홈마트는 저소득층 100가구에 백미 10kg 100포를 전했다.

단체와 기업들의 기부도 계속됐다.

지난 8일 구로구상공회 이호성 회장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또 지난 2일 쿠도커뮤니케이션

(주) 김용식, 박기훈 대표가 300만원, 지난달 28일 (주)하트캐싱(대표 손남식)이 500만원, KCFA한국소비자금융협의회(회장 구분영)가 500만원, 두선산업 주식회사(대표 정우혁)가 250만원, 26일에는 (주)경인씨엔에스(대표 김창덕)가 500만원을 전했다. 13일에는 (사)희망을 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이 KF 마스크 19만8,000장, 한성정보기술(주) 한병성 대표가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6일에는 대한적십자사(회장 이종욱)가 100만원을 후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설맞이 관내 복지시설 격려 방문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자 지난 4일, 5일 양일간 서울모자의 집과 구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햇살터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관내 11개소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구로구의회는 설을 맞아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자 지난 4일, 5일 양일간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사진), 서울모자의 집, 햇살터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관내 11개소 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로구의회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과 나눔을 통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로구의회는 매년 민족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찾아 위문하고 있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채홍길 기자>

이번 방문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 후 시설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시설 밖에서 관계자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복지시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복지시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박동웅 의장은 "이번 작은 나눔

전통시장 '설맞이 명절 이벤트' 연다

남구로시장 등 경품 및 할인행사, 온라인 판매 등

남구로시장을 비롯, 구로 관내 주요 전통시장에서는 지난 1월29일부터 오는 2월11일까지 14일간 설 명절 이벤트를 개최한다.

남구로시장은 2월1일부터 11일까지 '설맞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한다. 이희술 남구로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객과 상인 상생의 장을 마련

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 했다"며 "저희 시장에서 구매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영수증 5만원이상 소지 고객에게 영수금액별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아울러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이행 철저와 함께 예년과 같이 인파가 몰리는 문화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점포별로 할인행사를 벌인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 가리봉시장, 오류시장 등 전통시장에서도 각 시장별로 1일부터 11일까지 경품행사 및 농수축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할인 행사, 제로페이 우대, 온라인 판매로 고객을 맞이한다. <김유권 기자>

‘국민 작사가’ 박건호, 遺作 노래작사 ‘구로에 오시면’ 발견

‘대중가요 작사가’ 박건호

구로구에는 예술을 사랑하는 모임인 ‘예인회’ (회장 김지평 작사가)가 있다. 지난 2005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16년째 되는 예인회는 시인 소설가를 비롯해서 화가, 배우, 작사가, 서예가 등 구로에 살면서 예술에 종사하거나 활동중인 예술인들의 모임이다.

예인회 회원인 박건호 작사가이자 시인은 1972년 박인희의 〈모닥불〉의 가사를 쓰면서 작사가로 데뷔했다. 그는〈잊혀진 계절〉〈아! 대한민국〉〈빙글빙글〉〈그대는 나의 인생〉〈토요일은 밤이 좋아〉 등 수많은 히트곡의 작사가로 총 3,000여 곡의 가사를 썼다. 강원도 원주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미당 서정주의 서문이 실린 시집 〈영원의 디딤돌〉을 냈으며, 1972년 박인희가 부른 〈모닥불〉의 가사를 쓰면서 작사가로 데뷔했다. 일상적인 언어를 새롭게 소화해 친근하면서도 시적인 언어로 가사를 쓴 그는, 대중가요라지만 뜨겁게 앓고 있는 격정적 사랑과 삶의 이야기들을 진실하고 아름답게 그려냄으로써 당대 최고의 작사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인으로서도 꾸준히 작업하여 〈타다가 남은 것들〉〈고독은 하나의 사치였다〉〈추억의 아랫목이 그림자〉 등 10여 권의 시집과 에세이집 〈오선지 밖으로 튀어나온 이야기〉〈나는 허수아비〉 등을 냈다.

□ 박인희가 부른 ‘모닥불’로 작사가 데뷔

박건호는 박인희의 〈모닥불〉 이용의 〈잊혀진 계절〉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조용필의 〈모나리자〉 등 수많은 대중가요의 가사를 썼다. 또 나미의 〈빙글빙글〉 한울타리의 〈그대는 나의 인생〉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최진희의 〈우리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조용필의 〈단발머리〉 민해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등 수많은 히트곡의 작사가로 총 3,000여 곡의 가사를 썼다.

평범하게 쓰이는 일상적인 언어를 새롭게 소화해 친근하면서도 시적인 언어로 가사를 쓴 그는, 대중가요라지만 뜨겁게 앓고 있는 격정적 사랑과 삶의 이야기들을 진실하고 아름답게 그려냄으로써 당대 최고의 작사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인으로서도 꾸준히 작업하여 〈타다가 남은 것들〉〈고독은 하나의 사치였다〉〈추억의 아랫목이 그림자〉〈기다림이야 천년이 간들 어찌랴〉〈그리운 것은 오래 전에 떠났다〉 등 10여 권의 시집과 에세이집 〈오선지



생전의 박건호 작사가.



故 박건호 작사가 고향 강원 원주시에 조성된 공원의 비와 동상.



예인회 회원들이 지난 2004년 구로5동 음식점 ‘락구야’에서 모임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가운데가 故 박건호 작사가, 오른쪽이 김지평 작사가, 둘째줄 오른쪽 4번째가 이성 구청장, 셋째줄 맨 오른쪽이 김유권 구로오늘신문 발행인)

구로구 예술가 모임 ‘예인회’ 출신... 생전 구로서 작품 남겨 1972년 ‘모닥불’로 작사가 데뷔, 2007년 12월 58세로 생마감 ‘잊혀진 계절’ ‘아! 대한민국’ ‘단발머리’ 등 히트곡 3000여곡 고향 원주에 ‘박건호 공원’ 노래말비 30여개, 매년 가요제도

밖으로 튀어나온 이야기〉〈나는 허수아비〉 등을 냈다.

1980년 대 후반 뇌졸중으로 언어장애와 손발이 마비되는 중풍을 앓았으며 신장과 심장 수술 등을 받고 오랜 투병을 하면서도 예술의 혼을 놓지 않았다. 1982년 KBS가요 대상 작사상, 1983·1984년 KBS 제1·2 회 가사대상 대상, 1985년 한국방송협회 주최 아름다운 노래 대상, 1985년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

□ 구로구 사랑하는 마음 담은 ‘구로에 오시면’ 작사 남겨

예인회의 원년 멤버인 ‘대한민국 작사가’ 박건호는 지인 김유권 시인의 활동 무대인 구로구를 유난히 사랑했다. 시간만 있으면

‘구로오늘신문사’에 들려 바둑을 두거나, 문향을 불태우며 구로구 전역을 탐방했다.

그 결과 ‘구로에 오시면’이라는 노래를 작사하기도 했다. 미발표 유작 노래작사로 이대현 작곡인 ‘구로에 오시면’은 누구나 한번 노래를 들으면 구로에 대한 사랑에 폭 빠질 정도로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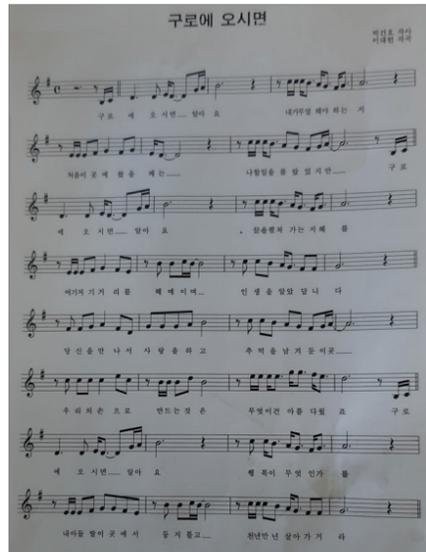
□ 58세의 짧은 나이로 세상 떠나

박건호 대한민국의 작사가. 아래 작품 목록만 봐도 알 수 있듯, 한국인치고 이 사람이 작사한 노래를 하나라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작사가’다. 오랜 기간 투병하면서도 작품 활동을 하다가 2007년 12월 9일 58세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사후 ‘하동의 섬진강’ 글 발견

박건호 작사가가 하동방문에서 쓴 글이 2010년에 발견되기도 했다. ‘하동의 섬진강’이란 제목으로 쓴 글은 박건호가 2005년 8월 19일 하동신문에서 주관하고 하동공원에서 개최된 ‘하동신문 창간 10주년기념 7080포크페스티벌’ 행사에 참석차 하동을 방문한 길에 쓴 것이다.

〈하동의 섬진강〉 섬진강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마중 나왔다가 천천히 모셔가고 있었다. 그것을 지켜보기 위하여 우리는 뜬눈으로 밤



故 박건호 작사가가 노랫말을 지은 ‘구로동에 오시면’ 악보.

구로에 오시면

구로에 오시면 알아요. 내가 무얼 해야 하는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나 할 일을 몰랐지만 구로에 오시면 알아요 꿈을 펼쳐가는 지혜를 여기저기 거리를 헤매이며 인생을 알았답니다 당신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추억을 남겨둔 이곳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건 아름다웠죠 구로에 오시면 알아요 행복이 무엇인가를 내 아들 딸 이곳에서 등지고 천년만년 살아가거라

을 새웠다. 맨 처음 바다와 강이 만나는 것을 보고 모두들 입을 모아 별로 맑지는 않다고 했는데, 웬걸 한 척의 작은 배가 지나간 뒤에 저 멀리 지리산 꼭대기를 향해 안개가 걷히더니, 강은 자연이 준 모습 그대로 맑은 심성으로 흐르는 것이었다. 섬진강이 하동에서는 천천히 흐르기도 하고, 빨리 흐르기도 하는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직업이 평론가라 꼬투리 잡기 좋아 하시는 임백천 선생님의 말수가 점점 적어진 것은 바로 그 때부터였다.

이필월 형은 소리없이 기타를 집어 들었다. 강물은 그의 손끝으로도 흐르는 것이었다. 수십 년 떠돌던 도시생활에서 만들어 내지 못하던 소리가 섬진강 새벽 강변에서 저절로 울려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야 터득한 것일까. 우리는 진중일 섬진강을 빙빙돌며 이 물을 마시고 자란 술한 사람들과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그래도 따라오는 섬진강 때문에 다시 남도를 향해 발길을 돌렸다.

□ 고향 원주에 ‘박건호 공원’ 조성

박건호 작사가 사후 2009년에는 원주시청 근처에 ‘박건호 공원’이 조성됐다. 박건호 공원이 조성되기까지는 본지 발행인이자 대표인 김유권씨가 직접 뛰어 다니면서 원주시청 및 원주 예술인들을 만나서 설득한 끝에 조성됐다.

공원에는 박건호 동상을 비롯해서 30여 개의 노랫말 비가 대한민국 최고의 작사가 ‘박건호의 흔적’을 빛내고 있다.

현재까지 매년 ‘박건호 가요제 및 시낭송 대회’가 열려서 고인이 된 박건호의 예술성을 기리고 있다. (김유권·한만수 기자)



강원 원주출신의 대중가요 작사가인 故 박건호를 기리는 노랫말 비가 고향에 건립됐다. 박건호노랫말비 건립추진위원회는 2008년 12월 9일 원주시 무실동의 모닥불 공원에서 문화예술계 인사와 작곡·작사가, 가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랫말 비 제막식을 가졌다.

오류1동새마을금고 'MG희망나눔 사랑의 줌도리운동' 펼쳐

조합원 십시일반 모은 쌀 10kg 300포 불우이웃에

오류1동새마을금고(이사장 민혁근)는 지난 2월4일 오전 10시 오류1동 소재 오류1동 주민자치센터 1층 근린생활시설내에서 민혁근 이사장을 비롯, 백경미 동장, 윤춘옥 오류1동 통친회장, 김진수 오류1동 자율방범대장, 이춘자 오류1동 자율방범여성대장, 수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MG희망나눔 줌도리운동' 행사를 진행했다.



오류1동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4일 오류1동 주민자치센터 1층 근린생활시설내에서 민혁근 이사장(왼쪽), 백경미 오류1동장(오른쪽), 윤춘옥 통친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MG희망나눔 줌도리운동' 행사를 진행했다.

민혁근 이사장은 "회원들이 자율적인 동참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밑알이 되어 주시고, 특히 코로나19로 마음 시린 이웃 어르신들에게 훈훈한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백경미 동장은 "오류1동 새마을금고가 있어 마음 든든하다"고 말하고 "새마을금고에서 조리실 인덕션 설치, 노인의 날 1천만원을 지원해 경로잔치를 열어 주시는 등 오류1동의 파수꾼"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날 사랑의 줌도리운동은 오류1동 관내 독거어르신 및 차상위 계층 등 복지대상자와 서울형 긴

급복지 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복지플래너 및 후원처가 추천한 대상자에게 백미 10kg 300포(금액 1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오류1동MG새마을금고 줌도리운동은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및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오류1동새마을금고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접목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사랑의 줌도리운동은 지난 98년부터 22년째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사랑의 줌도리운동을 펼쳐 이번에 전달하게 됐다.

오류1동 백경미 동장은 "따뜻한 겨울나기운동으로 주민이 비누를 만들고, 수세미를 딸과 함께 떠서 각각 100개를 가져 오기도 했으며, 어느 주민은 흉상 100상자, 라면 15상자를 기부하고, 또한 익명으로 2019년도 화재로 수혜 받은 100만원을 기탁하며, 더욱 어려운 곳에 쓰게 해 달라고 기부해 가득이나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단거리 육상 선수가 눈 깜짝할 사이인 0.5초의 기록을 단축시키는데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 은퇴할 때까지 자신의 신기록을 더 이상 갱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감독이 선수에게 올해 안에 5초를 단축시켜야 한다고 지시를 했다고 가정하자. 0.5초를 단축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쯤 목표를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표에 더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작심삼일은 반드시 어떤 계

작심삼일(作心三日) ㉠

열 배의 목표를 준다면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할 것이다.

평생 뒷산도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이 몇 년 후도 아닌, 당장 올 여름에는 히말리아의 에레브트산을 정복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다.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다. 가능한 목표를 세울 때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가능하지 못한 목표를 세우면 절망을 맛 본다. 벌써 1월이 가고 2월이 됐다. 1월 초에 거대한 목표를 세운

획을 완수하거나, 목표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말은 아니다. 자신의 처지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인지 조용히 반문해 보는 인생의 거울일 수도 있다.

올해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수정해서 한걸음 한걸음 걸어간다면 그 또한 멋진 연말을 맞을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본지 회장>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지역아동센터장과 간담회 센터운영 관련 애로사항 청취, 개선방안 모색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은 지난달 28일, 구의회 의정실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윤석주 회장을 포함한 3명의 임원들과 구로구청 어르신청소년과 과장 및 팀장이 함께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구로구에는 24개소의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은 지난달 28일, 구의회 의정실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등을 협의했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 632명이 이용하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운영방법 전환 등 센터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으며, 센터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 등 운영의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급식 조리 인력 등 시설종사자에 대한 고용과 지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돌봄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박동웅 의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물 건립 예정 시설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고용의 안정화와 업무의 지속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채홍길 기자>

페비닐·페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시행시기

대상	추진사항	시범운영	전면시행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분리배출	2020년 1월~11월	2020년 12월 ~
단독주택·상가	페비닐·페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목·금)	2020년 1월~2021년 11월	2021년 12월 ~

배출방법

- 공동주택 : 투명 음료·생수 페트병 전용 수거함 설치·배출
 - 유색 페트병 및 기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 단독주택·상가 : 페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하여 목·금요일에 배출
 - 일·화·목 배출지역은 목요일, 월·수·금 배출지역은 금요일에 페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
 - 목·금요일은 다른 재활용품 배출금지

대상	재활용품	배출방법	
		현행	변경
공동주택	투명 음료·생수페트병	플라스틱 혼합배출	유색 페트병 및 기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투명 음료·생수 페트병 별도 수거함 설치·배출
단독주택·상가	페비닐 및 투명 음료·생수페트병	재활용품 전품목 혼합배출 (월·수·금 or 일·화·목)	기존 일·화·목 배출지역은 목요일에 월·수·금 배출지역은 금요일에 페비닐과 투명 음료·생수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

문의사항 : 구로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활성화팀(☎860-2898)



설 연휴 비상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명단

구분	명 칭	전화번호	주소	02-11(목)	02-12(금)	02-13(토)	02-14(일)
총계				67	14	39	35
소계				2	2	2	2
종합병원	고려대 의과대학 구로병원	02-2626-1114	구로동로 148, 고려대부속구로병원 (구로동)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종합병원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경인로 427, 구로성심병원 (고척동)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응급실운영
소계				11	2	7	8
병원	아름제일여성병원	02-855-9911	구로구 새말로 110 (구로동)	10:00~13:00	휴진	휴진	10:00~13:00
병원	우리아이들병원	02-858-0100	구로구 새말로 15, 2~9층 (구로동, 삼전솔하임)	09:00~16:00	09:00~13:00	09:00~16:00	09:00~16:00
의원	김형수의원	02-2060-9111	구로구 경인로 191, 2층 (오류동)	10:00~18:00	휴진	10:00~18:00	10:00~18:00
의원	민천신부인과의원	02-2685-3388	구로구 경인로 322, 1,2,4,5층 (개봉동)	09:00~13:00	휴진	09:00~13:00	09:00~13:00
의원	신도림하나비인후과의원	02-859-5011	구로구 새말로 89, 태영빌딩 202, 501호 (구로동)	09:00~13:00	휴진	09:00~13:00	09:00~18:00
의원	조은의원	02-2677-0775	구로구 신도림로 16	09:00~13:00	휴진	휴진	09:00~13:00
의원	호산의원	02-862-7067	구로구 구로동로 215-1, 2층 (구로동)	09:00~15:00	휴진	09:00~12:00	휴진
의원	구로연세의원	02-858-7776	구로중영로 16, 2, 3 층	09:00~12:30	휴진	휴진	09:00~12:30
의원	제일성모내과의원	02-857-0005	구로구 시흥대로 561, 동해빌딩 3층 (구로동)	휴진	휴진	09:00~14:00	휴진
의원	코알라비비인후과의원	02-2687-5075	구로구 오류로8길 16, 세명프라자 202호 (오류동)	09:00~13:00	휴진	휴진	휴진
의원	항동연세소아청소년과의원	02-2066-7566	구로구 항동로3길6, 기온프라자 3층	09:00~14:00	휴진	휴진	09:00~14:00
의원	서울푸른숲내과의원	02-6451-7000	구로구 항동로3길 6, 5~7층	인공신장실 07:00~13:30	인공신장실 07:00~14:00	인공신장실 07:00~13:30	휴진
소계				54	10	30	25
약국	남구약국	02-838-3104	구로구 구로동로 33 (가리봉동)	08:30~01:00	08:30~01:00	08:30~01:00	08:30~01:00
약국	대림약국	02-2679-3553	구로구 신도림로 16	09:00~13: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두산약국	02-859-6414	구로구 구로중영로 16, 1층(구로동)	09:00~13:00	휴무	휴무	09:00~13:00
약국	세명약국	02-2615-7570	구로구 오류로8길 16, 세명프라자 201호 (오류동)	09:00~13: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종로약국	02-2612-3986	구로구 고척로 142, (고척동)	09:00~13: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태영약국	02-858-5597	구로구 새말로 89, 108,109호 (구로동)	09:00~13:00	휴무	09:00~13:00	09:00~13:00
약국	해솔약국	02-2625-0026	경인로 393-7, 일미삼전지타운 2층 1층 120호 (고척동)	09:00~13: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아이사랑대명약국	02-853-3001	구로구 새말로 15, 101호일부,102호 (구로동, 삼전솔하임)	09:00~16:00	09:00~13:00	09:00~16:00	09:00~16:00
약국	구로약국	02-865-1122	구로동로 147, MEDI FLOWER 147 1층 (구로동)	09:00~17:00	09:00~17:00	09:00~17:00	09:00~17:00
약국	그린프라자약국	02-861-6553	구로구 구로동로 135	09:00~17: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미문약국	02-838-7020	구로동로 77, 동해빌딩 지하1층 (구로동)	09:00~17: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비타민약국	02-864-7508	구로동로 115, 청보빌딩 지하1층 (구로동)	09:00~17: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늘푸른약국	02-851-0601	구로구 구로중영로12길 38, (구로동)	09:00~18: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대웅프라자약국	02-839-2276	구로구 새말로 89	09:00~18:00	휴무	09:00~18:00	12:00~18:00
약국	종로프라자약국	02-839-7422	구로구 구로중영로 17, (구로동)	09:00~18:00	휴무	09:00~14:00	휴무
약국	금약국	02-2060-778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 132	09:00~18:00	09:00~17:00	휴무	휴무
약국	칠성약국	02-2618-6465	구로구 부일로15길 4, (궁동)	09:00~19: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하나약국	02-851-9945	구로구 구로동로 179 (구로동)	09:00~19: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니은약국	02-830-4019	구로구 구로동로28길 100	09:00~20:00	10:00~20:00	10:00~20:00	13:00~20:00
약국	독일약국	02-2681-9495	구로구 오리로 1297, 1층(궁동 청파빌딩)	09:00~20: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온누리치해약국	02-2687-2770	구로구개봉로66 (개봉동)	09:00~20: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용해약국	02-863-4867	구로구 도림로 29, (구로동)	09:00~20: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구림약국	02-856-0619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52, (가리봉동)	09:00~21:00	휴무	09:00~21:00	09:00~21:00
약국	기린약국	02-866-7100	구로구 구로동로 215-1 (구로동)	09:00~21:00	휴무	09:00~21:00	휴무
구분	명 칭	전화번호	주소	02-11(목)	02-12(금)	02-13(토)	02-14(일)
약국	백두약국	02-2689-6576	구로구 오류로8길 26 (오류동)	09:00~21: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수태평양약국	02-2625-2601	구로구 고척로 144, 두발로빌딩 1층 (고척동)	09:00~21:00	11:00~21:00	09:00~21:00	09:00~21:00
약국	윽티마건강약국	02-2060-2541	구로구경인로315 (개봉동)	09:00~21:00	휴무	09:00~16:00	09:00~14:00
약국	정광약국	02-2687-2983	구로구 남부순환로97길 11, (개봉동)	09:00~21:00	휴무	09:00~21:00	휴무
약국	한마을약국	02-2613-3006	구로구 경인로 382, 1-110(개봉동, 한마을아파트상가)	09:00~21:00	휴무	09:00~21:00	10:00~21:00
약국	혜미리약국	02-2683-3785	구로구 고척로 139, (고척동)	09:00~21: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365열린약국	02-3666-0784	남부순환로97길 3, 105호 (개봉동, KS프리미어빌딩)	09:00~22:00	09:00~22:00	09:00~22:00	09:00~22:00
약국	인정약국	02-3666-0500	구로구 서해안로 2296 (오류동)	09:30~13:00	휴무	09:30~13:00	09:30~13:00
약국	동성약국	02-854-3357	구로구 디지털로19길 51	09:30~20:3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은성약국	02-2636-9150	신도림로19길 7, 1층 110호 (신도림동, 성광메디칼빌딩)	10:00~16: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대림우리약국	02-855-7538	구로구 대림로 92(구로동)	10:00~17: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시정약국	02-2681-3535	구로구 경인로47길 126 (고척동)	10:00~17: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좋은약국	02-2615-6999	구로구 경인로40길 34	10:00~17:00	휴무	10:00~17:00	휴무
약국	505약국	02-856-5050	구로구 구로동로42길 58, (구로동)	10:00~18:00	휴무	10:00~18:00	휴무
약국	부부약국	02-2688-0151	구로구 오류로8길 60, (오류동)	10:00~18: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태양약국	02-2685-1017	구로구 경인로 191 (오류동)	10:00~18:00	휴무	10:00~18:00	10:00~18:00
약국	디큐브약국	02-2211-0227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10:00~20:00	휴무	휴무	11:00~20:00
약국	온누리최정숙약국	02-2612-2040	구로구 중영로1길 36, 3동122호 (고척동, 일미삼전지타운)	10:00~20:00	휴무	10:00~20:00	휴무
약국	재훈약국	02-854-2250	구로구 시흥대로1617길 16	10:00~20:00	휴무	10:00~20:00	휴무
약국	구로프라자약국	02-2613-6044	구로구 개봉로 32 (개봉동)	10:00~20:30	휴무	10:00~20:30	10:00~20:30
약국	구로중로약국	02-2688-0155	구로구경인로193 (오류동)	10:00~21:00	휴무	11:00~21:00	11:00~21:00
약국	온누리사랑의약국	02-862-2884	구로구 구로동로15길 17, (구로동)	10:00~21:0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우리네온누리약국	02-853-2614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16 (구로동)	10:00~21:00	휴무	10:00~21:00	10:00~21:00
약국	W스타아침약국	02-855-1482	구로구 디지털로 227 (가리봉동)	10:00~22:00	12:00~22:00	10:00~22:00	10:00~22:00
약국	성인약국	02-2682-2643	구로구 개봉로 9 (개봉동)	10:00~22:00	12:00~22:00	10:00~22:00	10:00~22:00
약국	구로엔씨온누리약국	02-6923-2111	구로구 구로중영로 152	10:30~21:00	휴무	10:30~21:00	10:30~21:00
약국	맑은약국	02-2617-2190	구로구 경인로40길 47	10:30~21:30	휴무	휴무	휴무
약국	구로시정약국	02-854-1385	구로구 구로동로26길 37 (구로동)	11:00~17:00	휴무	휴무	11:00~17:00
약국	열린약국	02-2625-6040	구로구 고척로 142-1, (고척동)	11:00~19:00	휴무	11:00~19:00	11:00~19:00
약국	녹십자약국	02-830-0222	구로구 구로동로28길 2, 1층 (구로동)	14:00~21:00	14:00~21:00	14:00~21:00	14:00~21:00
약국	모스팜약국	02-2111-1222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지하1층 BS026호 (구로동)	휴무	휴무	휴무	12:00~19:00
약국	온누리한라약국	02-862-0157	구로구 구일로10길 49	휴무	휴무	10:00~18:00	휴무
약국	즐거움약국	02-2685-5675	구로구 경인로 320 (개봉동)	휴무	휴무	09:00~13:00	휴무

관내 단체와 함께 '설맞이 봉사 릴레이' 펼친다

취약계층 대상 말벗 봉사, 명절음식·생필품 나눔 등

구로구가 관내 단체들과 함께 설맞이 봉사활동을 펼친다.

구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행복한 설 연휴를 위해 각 동 단체들과 봉사 릴레이를 전개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먼저 각 동 자원봉사캠프는 저소득 홀몸어르신 160여명을 대상으로 말벗 봉사를 실시한다. 캠프 소속 상담가들이 전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며 외로운 마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원봉사협력단과 함께하는 봉사 활동 릴레이도 이어진다. 동별 특성에 맞춰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떡국떡, 백미, 갈비 등 명절음식과 생필품을 전달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마음은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보훈가족에 '따뜻한 겨울나기 발열 토퍼' 선물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 설을 맞이하여 지난 1월 29일 보훈가족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울남부보훈지청(지청장 양홍준)을 찾아 발열 토퍼 전달식을 가졌다.

신옥희 본부장은 "올해도 추운 겨울을 보내는 지역사회 보훈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시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년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 호국보훈의 달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의 예우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과 무료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 설을 맞아 지난달 29일 보훈가족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찾아 발열 토퍼 전달식을 가졌다.

양홍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공헌과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따뜻하고 든든한 보훈 실현을 위해 더욱더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20개 선정 지원

10인 이상 성인 평생학습동아리 최대 100만원 지원

구로구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을 펼친다.

구는 "주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내 공동체 활동도 장려하기 위해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을 마련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평생학습동아리는 주민들이 관심 분야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재능기부 등의 환원 활동을 펼치는 소모임이다.

구로구는 지역에서 성인 10인 이상 활동하는 20여개의 평생학습동아리를 선정해 동아리별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평생학습관, 동네배움터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후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결성한 동아리나 학습 모임과 재능기부 활동이 월 2회 이상인 동아리, 온라인 플랫폼

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등을 우선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동아리는 이달 8일부터 10일 사이 구청 교육지원과를 방문해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파일을 이메일(harin1222@guro.go.kr)로 전송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구로구는 서류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동아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3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배움의 즐거움과 나눔의 행복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교육지원과 860-2841. <한만수 기자>

‘코로나 한파’로 발길 끊어진 복지시설 ‘깡깡’

“후원 손길 없는 복지시설 설날은 더 추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설날도 코로나의 한파는 기세등등하게 거리를 점령하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밀려드는 쌀과 과일, 떡 등 설날 음식들로 웃음꽃이 피던 양로원과 보육원 등 복지시설에는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최근 쓸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후원문의나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이 뜰 끊겨 자체적으로 설 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그 흔한 간식 한 끼 챙기기도 힘든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영향과 과일값이 폭등한 탓에 그동안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과일 선물이 아예 들어오지 않아 간식 제공에 어려움이 크다.

장애인공동체 브니엘의 집 박상준 원장은 “지닌 해는 어려워도 사과나 배 등 과일을 20박스 씩은 받았는데 올해는 과일이나 떡, 생필품 등의 후원이 전혀없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어르신들

에게 드릴 간식이나 선물이 없어 우리 운영비에서 충당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회사는 경제가 어려우니 이해를 하겠는데 공공기관에서까지도 손길이 끊어져 씁쓸하다”면서 “요즘 워낙 다들 어려워 좀 도와달라고 다른 곳에 요청하기도 미안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양로원에 입소해 있는 정 모(77) 할머니는 “그 전 같으면 후원받은 떡국을 끓여 그나마 명절 기분을 내곤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어 명절인지도 모르겠다”면서 “과일은 구경도 못했다”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같은 후원물품 등의 부족 현상은 아동 복지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류마을 관계자는 “개소 이래로 이처럼 후원이 없었던 적은 처음인것 같다”면서 “후원이 줄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뜰 끊겼다. 과일 등이 없어 설날 물품은 최대한 보조금 한도에 맞춰 조출하게 마련할 예정”이라며 아쉬워했다.

후원의 물품만 끊어진 것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원봉사자의 발길이 하나 둘 줄어들어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는데 조용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후원, 방문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설날 앞두고 기업체 택배물량도 늘고 있고 고가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는 등 복지시설과 너무 대조적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이 문제가 아니라 무관심으로 후원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는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이 198개소(구립47개소, 사립 151개소)가 있다. 장애인복지시설로는 브니엘의 집,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성프란치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다. 아동 양육시설은 오류마을과 에델마음이 있다. <한만수 기자>

천왕동 남부교도소 확진자 10명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발생한 지난 3일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의료폐기물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지난 2일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일 1명이 추가로 발생해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취사장에 있는 수용자 10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6일 추가 확진 수용자는 지난 2일 확진관정을 받은 9명과 같이 취사장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9명이 확진관정을 받은 뒤 수용자 950명과 직원 350명 등 총 1280명을 전수조

사해 6일 확진관정을 받은 수용자를 제외한 전원 음성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남부교도소에 ‘현장대책반’을 설치하고 질병관리청, 구로구 보건당국과 함께 전 수용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비확진 수용자 중 42명은 영월 교도소로 긴급 이송했고, 1인실을 확보해 확진자와 접촉자를 1인 1실로 격리했다고도 덧붙였다.

<김유권 기자>

‘코로나19생활치료센터’ 화재대피훈련

구로경찰서-구로소방서 합동 대응태세 점검



구로경찰서는 관내 소재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를 대상으로 내·외부 경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시설 내 화재발생에 대비해 지난달 두번에 걸쳐 구로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구로경찰서(서장 임경우)는 관내 소재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를 대상으로 내·외부 경비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시설 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지난 1월19일, 1월 25일 구로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코로나19 관련시설 가상 화재훈련은 호텔·모텔을 개조한 외국인 임시생활시설과(1개소), 생활치료센터(1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의 초기화재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입소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현장에서 각 기관이 함께 모여 △화

재발생시 초동조치 △시설근무자의 임무부여 △소방차량 출동대비 합동 통제선 구축 △입소자 대피장소선정에 따른 경비실시 △입소자 이송작전 실시 등 화재발생에 대비한 전반적인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구로경찰서 최용배 경비과장은 “유관기관과 현장에서 화재대피 훈련을 통해 시설 운영의 위험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 주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8일 현재 누적 확진자 총 833명... 사망자 8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2월14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8일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가 833명으로 일주일사이 30여명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관내 830번 확진자는 타 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6일 동작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고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831번 확진자도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6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고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832·833번 확진자는 가족으로 6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고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누적 확진자는 모두 833명

으로 집계됐다. 이날 현재 사망 8명, 747명이 완치 되었, 78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373명, 해외입국자 256명 등 모두 629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미소돌요양병원 관련 44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보성운수 관련 4명, 타시군구 접촉자 427명, 해외 입국 7명, 기타 279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8일 현재 모두 2만5천279명으로 사망자

는 339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서구가 제일 많은 1,585명 ▲송파구가 1,411명 ▲관악구 1,228명 ▲강남구 1,194명 ▲노원구 1,082명 ▲성북구 1,080명 ▲중랑구 1,073명 ▲동작구 1,043명 ▲은평구 1,011명으로 9개구가 1,000명을 넘어섰다. 이어 ▲서초구 995명 ▲동대문구 931명 ▲양천구 922명 ▲영등포구 913명 ▲마포구 879명 ▲구로구 833명 ▲도봉구 783명 ▲강동구 777명 ▲서대문구 693명 ▲강북구 666명 ▲성동구 621명 ▲광진구 618명 ▲용산구 574명 ▲종로구 526명 ▲금천구 413명 ▲중구 372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중소형까지 대상 확대

구로구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에 중·소형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중·소형 이륜자동차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1월 말 현재 구로구 관내에 등록된 이륜차는 중형 9,389대, 소형 4,686대 등 총 1만5,951대다. 이 중 올해 검사 대상은 899대다.

검사 주기는 신규 출고의 경우

3년, 최초 검사 이후로는 2년이다. 정기검사 안내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차례 보내며,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구청이 2회 통지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구청 환경과 02-860-2413. <김유권 기자>

구로문화원 제6대 원장에 이계명 부원장 추대

2월 15일 정기총회서 선출

구로문화원(원장 최문식)은 오는 2월 15일 정기총회를 개최, 제6대 문화원장에 이계명 현 부원장(사진·71세 동구로새마을금고 이사장 겸 구로금천구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장)을 선출한다.

이에앞서 구로문화원은 지난 1월 27일 이사 7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계명 부원장을 원장



중임 할수 있다.

새 문화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으로 만 장 일 치 추 대 했 다. 문 화 원 장 임 기 는 4 년 으 로

15일부터 시작된다.

현 최문식 4-5대 원장은 4년 연 임으로 2013년 3월부터 8년간 임 기가 만료되어 오는 3월 14일 마 무리하게 된다.

최 원장은 그동안 각종 다양한 영역의 문화강좌를 개설해 현재 연간 1만2천여명의 지역구민이 문화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 구립도서관 업무를 위탁운영 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 겼다. <채홍길 기자>

초대시

저녁 골목길에서

시인 원 종 택



우력 한 마리 사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둠이 내려 질어가는 골목
파지 가득한 수레를 끄는
한 노인을 만났다

한 끼 저녁 찬거리인데
나는 이리 힘든걸
노인은 어제의 간난(艱難)과
내일의 신고(辛苦)까지
수레에 가득 싣고
말없이 끌고 간다

한없이 부끄러웠다

- 일본 교토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법무주 재관
- 2012.10 한울문학 등단, 2013.1월 문화예술진흥회 작가상 수상, 한국문인협 회 회원
- 2019.12 문예창작실기 지도사 1급 자격 취득
- 홍조근정훈장, 근정포장, 국무총리 표창 등 수상.

생활안내책자 '구로 人(in)' 발간

새해 달라진 제도·각종 지원사업·여가생활 등 생활정보 수록



생애주기·대상 별 지원사업 ▲ 위드(with) 코로 나 시대 구로구 온·오프라인 축제, 문화·체육시설, 자치회 관·문화원 프로그래 등 여가 생활 ▲구로구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김현석 기획예산과장은 "‘구로 人(in)’ 생활안내책자는 많은 정 보가 주제별로 잘 정리돼 있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다양한 생활정보, 쉽고 편하게 확인하세요!"

구로구가 '구로 人(in)' 생활안 내책자를 발간했다.(사진)

구는 "주민들이 새해 달라진 제 도, 필요한 생활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한데 모아 '구로 人(in)' 생활안내책자를 제작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구로 人(in)' 생활안내'는 32쪽 분량으로 ▲2021년 달라진 제도 ▲올해 예산 규모, 편성내역 등 살림살이 ▲영유아·청소년·어르신·여성·다문화·장애인 등

전도(全圖) ▲생활폐기물 처리방 법, 각종 민원신고, 전입주민 안내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정보가 수록됐다.

주민들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어 려운 전문용어 대신 사진, 도표, 지도, 삽화 등 시각적 자료를 활 용했다.

구로구는 '구로 人(in)'을 총 1 만부 제작해 구청 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등 주민들의 방문이 많 은 곳에 비치했다. 또, 많은 주민 이 볼 수 있도록 e-book을 발간해

'구로1동 마을길라잡이' 마을안내지도 발행

관내 주요기관, 행정정보, 명소, 교통편 등 담겨

구로구가 '구로1동 마을길라잡이' 마을안내지도를 발행했다.



구는 "구로1동에 대한 생활정 보를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마 을안내지도 '구로1동 마을길라잡이'를 제작 해 최근 배포했다"고 밝혔다.

'구로1동 마을길라잡이'에는 마을지도를 비 롯해 주요기관 주소, 연 락처, 행정정보 등이 수

록돼 있다. 마을의 역사, 명소, 공 유공간, 자치회관 프로그램, 교통 편, 안양천 안내 등 다양한 정보 도 담겨 있다.

마을안내지도는 '구일 한바퀴 추천코스'를 통해 산책로도 제공 한다. 마을 곳곳을 둘러볼 수 있 도록 A, B 2개 코스로 구성됐다. 구로1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은 마을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마 을지도제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 고 기획부터 발행까지 모든 과정 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채홍길 기자>

따뜻하고 정겨운 설 福 많이 받으세요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